

베트남 호치민

이름 : VUI KHONG?

행복하니?

INDEX

1. 일정 소개 / 활동 내용

- 베트남어 수업
- 호치민 City discovery
- 흥안 유치원

2. 개인별 에세이



1. 활동내용

베트남어
수업

호치민
City
Discovery

홍안 유치원



활동 1) 베트남어 수업



활동 1) 베트남어 수업

베트남어 수업은 6명의 봉사자와 함께 했다.

YMCA 건물 1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 / 오후 2시간

6명의 봉사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트남에 적응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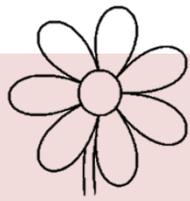


활동 1) 베트남어 수업

한국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한 윗남이와 공기놀이



Bich (슬빈)의 생각



어려워요.

매일 공부하는데 우리 YMCA 식구들 중 아무도 내가 하는 베트남어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세요.

베트남어는 발음이 어려운데 제대로 말해서 선생님이 칭찬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꼬 남(이모님)과 함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Dung (희주)의 생각



“Kho!! 너무 어려워!!”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khó* 어렵다’

베트남어는 성조만 6개, 성조를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

팀원들 모두 선생님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 해보지만 계속해서 틀렸다는 말에 멘붕이 되어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똑같이 말했는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활동 2) City Discovery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우리는 주말에 베트남 YMCA 봉사자들과 함께 호시민 시내 구경을 나갈 수 있었다.
YMCA는 호치민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한 번 나가기가 힘들다.

계속 방에서 놀던 우리에게 너무 신나는 일이었다.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우체국도 갔는데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
멋지다.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 늦게까지 돌아다니기도 했다.

길 헤매는 중에도
즐거게!!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이 곳은 독립기념관 그리고 또 다른 박물관(이름이 생각이 안난다...)

독립기념관에서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비 오는데 우리를 오토바이
태워서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 준
친구들이다.

주말마다 열리는 플라마켓도
갔었는데, 서울의 홍대가 생각났다.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호치민에 온 사람은 한 번씩은 가본다는 벤탄 시장이다.
생각보다 크고 건물이 예뻐서 놀랐다.



활동 2) 호치민 city discovery



비록 운전은 못해서 뒷자리에 타지만

호치민에서 멀리 움직일 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오토바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손 놓고도 탄다는 그 오토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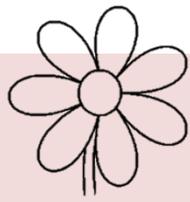
적 호치민 CITY TOUR





베트남어 수업 동문 후
홍모임

Bich (슬빈)의 생각



‘고아! 좋아!’

바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가는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가 더 좋아졌어요.

Dung (희주)의 생각



‘vui 즐거워’

9월 한 달 동안 호치민 시내에 꽤 많이 나가서 현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집에 들어와 누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언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활동 3) 흥안 유치원



활동 3) 홍안 유치원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공식 일정

추석을 맞이해 우리는 홍안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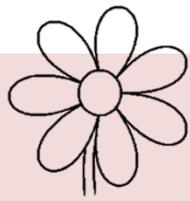
베트남 추석은 한국의 어린이 날과 비슷한데,
이날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과자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연극을 보면서 베트남의 추석을 즐길 수 있었다.





Bich (슬빈)의 생각



‘hang ngay’

가기 전부터 들떠서 갔던 유치원!

첫 활동을 간거라 떨리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베트남어를 못해서 아이들이 나한테 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슬펐지만 매일 매일 가고 싶은 곳이에요.

Dung (희주)의 생각



‘두근두근’

한 달이 다 되도록 베트남어 수업만 들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첫 활동.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 할 수도,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2. 개인 에세이



9월, 각자의 이야기

1주길 Bich (슬로빈)의 이야기

수많은 오토바이가 달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호치민 그 활기찬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
이 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이 모두 좋다.
한 달간은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 것 외에는 개인 시간이 많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했다.
9월 말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하지만 무겁지 않게 생각하고 싶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행복하냐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 들으니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면 재빨리 행복한 어떤 것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행복하냐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다.
국내 훈련부터 고민했던 내가 라온아피를 하고 싶었던 이유를 정의하려고 끙끙거리기 보다는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려 한다.
감정, 관계, 생각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풀어내고 싶다.



수글 Dung (크리주)의 이야기

“Vui khong?/ 행복하니?”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다.
총장님, YMCA 식구들, 친구들 모두 우리에게 Vui khong?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 씩 묻곤 한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웃으면서 “Da, vui/ 네, 행복해요”라고 말한다.

베트남에 처음 오던 날, 나는 기대감이나 설렘 보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긴장해 있었다.
현지에 도착한 후 3일은 내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 수는 줄어들었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소 짓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나는 언어의 장벽, 두려움을 핑계로 현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데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었지만,
막상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자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다행인 것은 이 당황스러움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인데,
베트남어 수업이 시작된 후 현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우리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함께 대화 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친구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을 때,
또 호치민 YMCA 가족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챙겨주실 때면
“내가 언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 찬다.

여기서 나는 나를 감춰야 하거나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웃어주고 그럼 나는 행복해진다.

베트남 호치민 10월달에 만나요